



프린스턴大 Gene Grossman 교수 초청 학술행사 개최

경제학부는 12월 3일(월)~7일(금) 동안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Gene Grossman 교수를 초청하여, 세미나와 공개강연을 개최하였다. 12월 4일 개최된 김태성 기념세미나에서 "Trading Task: A Simple Theory of Off-shoring"을 주제로 발표했고, 12월 3일에는 "International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arallel Imports and Price Controls"를 주제로 경제학부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개강연을 하였다. 개별 면담을 신청한 학생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관련연구 분야에 관심있는 학생들은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Gene Grossman 교수는 세계적인 국제경제학자 중 한 사람으로 현재 프린스턴대학교 국제경제학 Jacob Viner 석좌교수이며 국제경제학 부문(International Economics Section)의 director이다. 그는 1976년 예일대에서 학사학위, 1980년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80년에 프린스턴대학교의 교수진

이 되었고, 현재는 프린스턴대학 경제학부와 우드로 윌슨 공공 및 국제 문제 연구소(Woodrow Wilson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의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다.

Grossman 교수는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지난 30여년에 걸쳐 American Economic Review(13편), Journal of Political Economy(7편),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9편), Review of Economic Studies(5편),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Rand Journal of Economics 등 저명 학술지에 약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방대한 저술 작업을 해왔다.

Grossman 교수는 동태적 국제경쟁의 결정요소, 연구 집중적 산업과 관련된 업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Elhanan Helpman 교수와 함께 쓴 "세계경제의 혁신과 성장(Innovation and Growth in the Global Economy)"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서이다. Grossman 교수는



최근 Helpman교수와 공동으로 집필한 저서에서 현대 무역정책을 구체화시키는 정치적 권력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는데, 2001년 MIT 출판부에서 발행된 "Special Interest Politics"와 2002년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발행된 "Interest Groups and Trade Policy"가 그 저서들이다. Grossman 교수는 최근 역외 아웃소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수행 교수 정년 퇴임



경제학부의 김수행 교수가 정년을 맞이하였다. 경제학부는 11월 22일 오후 5시에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

서 김수행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정년 기념식 및 논문 봉정식'을 주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김수행 교수의 정년을 축하하기 위해 200여명의 동료 교수와 학생·친지가 모였다. 저마다 그간 김 교수의 연구업적을 기리며 축하의 덕담을 나눴다. 정년 기념식에서 김수행 교수는 제자들과 함께 집필·편집한 기념 논문집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서울대출판부)를 증정받았고, 이어 노래패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김수행 교수는 1965년 본교 경제학과를 졸업

하고 67년 본교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다. 그 후 한국외환은행 런던지점에서 근무하다가 영국 런던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1982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수행 교수는 1989년 이후로 본 경제학부의 교수로 재직하며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연구를 해 왔으며, 1989년에서 1990년에 걸쳐 국내 최초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완역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INDEX

- ① 경제학부 주요소식 ④ 교수기고 I ⑤ 교수기고 II
- ⑦ 동문기고 ⑧ 재학생 기고 I ⑨ 재학생 기고 II
- ⑩ 경제학부 단신 I ⑪ 교수신간안내 ⑫ 경제학부 단신 II

경제학부 학술행사

SJE 심포지움 개최



본교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영문계간지 'Seoul Journal of Economics'의 창간 20주년을 맞아 2007년 10월 23일에 「제15회 Seoul Journal of Economics 국제심포지움」을 멀티미디어 강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한국 및 일본, 중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모여 “한중일 기업 생산성 비교 : Productivity and Performance of the Firms in Korea, Japan, and China”를 주제로 이론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깊이 있게 전개하였다. 이 행사는 본교 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경제학부 BK21 사업단이 주최하였다.

Int'l Conference on Transition



경제학부(BK21)는 2008년 1월 18일, 호암교수회관에서 KIEP, SK와 공동으로 “Experience of Transition Economies and Implications for North Korea”라는 주제로 이행기경제에 관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행기경제 국제학술대회에는 UC

Berkeley대학의 Gerard Roland 교수를 비롯하여, 한국 및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중국, 헝가리, 몽골 등 다양한 국가의 학자들이 모여 깊이 있는 학술토론을 전개하였다.

정책토론회 개최

본교 경제연구소와 경제학부 BK21사업단은 2008년 1월 24일, 서울 명동의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향후 5년간의 한국경제: 신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그동안의 한국의 경제 정책과 성장 경로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경제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공동주관하였다.

제1회 대학원생 국제세미나 개최



경제학부 BK21사업단은 2008년 1월 25,26일 양일간 멀티미디어동에서 제1회 경제학부 대학원생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우리학부 대학원생과 함께 캐나다, 중국, 대만, 일본, 영국의 대학원생 12명과 외국 학자 6명이 참석하였다.

BK21 사업단 소식

BK21사업단은 2007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지원했다.

- ▲ 해외석학 초청 BK21 김태성 세미나 41건 ▲ Brown Bag Lunch 세미나 11건
- ▲ 2007년도 2학기 장기연수 2명 박강우(박사과정) : 로체스터대(美) “Labor Effort and Labor-Market Fluctuations”
김이경(박사과정) : 아메리칸대(美) “Do strong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pur Economic Growth?”
교수, 박사후과정, 대학원생이 일본, 영국, 미국, 포르투갈, 캐나다, 이탈리아, 체코, 말레이시아, 그리스, 중국, 러시아, 네덜란드 등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참석하였다.
- ▲ 2007년도 단기연수 38명

BK21 / 김태성 세미나 (2007년 하반기)

Myrna Wooders(Vanderbilt Univ. & Univ. of Warwick) Conformity, equity and correlated equilibrium

남재현(서강대) Vaporware

Akira Okada(Hitotsubashi Univ.) The Nash Bargaining Solution in General n-Person Cooperative Games

김재훈(KDI) Swing Voter's Curse

Yoshi Nishiyama (Kyoto Univ.) Measuring of Firm Specific productivities : Evidence From Japanese Plant Level Panel Data

설동규(University of Auckland) Estimating and Testing Idiosyncratic Equations using Cross-Section Dependent Panel Data: Application to Feldstein-Horioka Puzzle.

김희삼(KDI)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Old-Age Income Security in Korea

Joseph Ostroy(UCLA) Decentralized Knowledge, Internal Organization, and the Limits of the Price System

김세익(Univ. of Washington) Economic Assimilation of Foreign-Born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 An Overlapping Rotating Panel Analysis

Moto Shintani(Vanderbilt Univ.) A Stochastic Dominance Analysis of High-Frequency Data With An Application to The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Puzzle

James Choi(Yale Univ.) The Flypaper Effect in Individual Investor Asset Allocation

Cheng Wang (Iowa State Univ.) Equilibrium Matching and Termination

Ping Wang(Washington Univ. St.Louis) Ability - Heterogeneity,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

Gene Grossman(Princeton University) Trading Tasks : A Simple Theory of Offshoring

김진일(FRB) How Much Inflation is Necessary to Grease the Wheels?

홍계화(Univ. of Rochester) Constrained efficiency in the neoclassical growth model with uninsurable idiosyncratic shocks

윤택(FRB) Strategic Complementarities and Optimal Monetary Policy

Price Fishback (Univ. of Arizona) Does Large-Scale Military Spending Stimulate Local Economies? The Implications of WWII Spending for Local Economic Activity, 1939-1958

교수수상

이영훈 교수 '봉래상' 수상



이영훈 교수는 2007년 12월 7일에 「대한민국이야기」(기파랑, 2007. 5)라는 책으로 봉래출판문화재단으로부터 봉래상을 수상하였다. 봉래상은 사상계편집인 부완혁씨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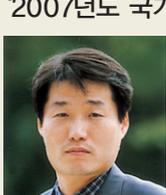
이철희 교수

'경제사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이철희 교수는 경제사학 40호에 출간한 논문 "미국 고령인구의 경제적 지위변화와 복지국가의 형성"으로 2007년 경제사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 논문은 역사적 자료의 분석과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미국의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늦은 1930년대에 확립되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형성 및 변화 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근 교수



'2007년도 국가석학'으로 선정

이근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우수연구자를 집중 육성하고 장기적인 연구를 보장하기 위한 '2007년 우수학자' 경제학 분야 국가석학으로 선정되었다. 국가석학은 한국을 대표할 만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학자임을 국가가 공인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선정됐다. 정부는 국가석학이 연구에만 매진, '노벨상' 등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에서 연구비를 지원한다.

올해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로 선정된 교수는 최대 5년간 매년 3000만원을 받게 된다. 경제주거 문제에 집중해 온 이근 교수는 국내 6대 산업연구를 통해 후발국과 후발기업이 어떤 조건에서 선발국과 선발기업을 추격할 수 있는지를 밝혀낸 논문으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이론을 중국 사례에도 적용해 중국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교수동정

정운찬 교수 사회과학협회장 취임



정운찬 교수가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제17대 회장에 취임했다. 사회과학연구협의회는 사회과학의 학문분야간 상호협동을 기하고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교육에 관한 연구를 기획·조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김영식 교수 승진



김영식 교수가 2007년 10월 1일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였다. 김교수는 거시경제학과 화폐금융론을 담당하고 있으며, 1994년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박사를 받고 2004년 9월 이후 우리 경제학부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이근, 김병연 교수

경제학부 부학부장 겸무



이근 교수(좌측)와 김병연 교수(우측)가 2007년 9월 1일~2009년 8월 31일까지 경제학부 부학부장업무를 겸한다. 이근 교수는 교무업무를 담당, 김병연 교수는 학생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경제학부 비학술행사

'經友의 밤' 행사

'經友의 밤'은 30년 넘게 지속되어왔던 경제학부 선, 후배간 만남의 행사였으나 사회과학대학이 학생모집광역화를 실시한 이후로 사라졌던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2007년도에 경제학부로 진입한 학생(학생대표 유승은)들이 기획하고 준비하였다.



'經友의 밤' 행사에 참석한 교수와 선후배

Wide & Cheese Party 개최



사회과학대학의 각 학과는 매년 돌아가면서 'Wine & Cheese Party'를 개최하고 있다. 2007년도는 경제학부의 주최로 11월 18일 사회과학대학 6층 교수휴게실에서 개최되었다. 경제학부는 사회과학대학의 모든 교수들을 초청하였고, 많은 교수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문의 봉우리를 키우기 위하여



정운찬 교수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은 각각 2005년과 2006년 수개월에 걸쳐 자체적으로 외부평가, 좀 더 정확하게는 외국 평가를 받았다. 수학, 물리학 등 자연대의 전분야, 그리고 전자공학, 재료공학 등 공대의 수개분야에서 미국의 해당 학회장 또는 전임 학회장을 포함한 저명 교수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외부평가단(external review committee)을 구성하였다. 외부평가단은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3일간의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한 후, 교수, 학생의 질, 장래발전 가능성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학의 자연대와 공대는 학생의 능력이 뛰어나고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고 있었다. 서울대를 미국에 갖다 놓는다면 당장이라도 거의 모든 학과가 해당분야의 20위-30위 정도가 될 것이라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자연대와 공대는 평가 결과에 크게 고무되었다. 그러나 외부평가단은 이런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따가운 충고도 잊지 않았다. 우선 각 학과에 우뚝 선 봉우리가 되어 동료들을 이끌어갈 그리고 동료들이 본받고 따를 세계적 거인이 부족하고, 둘째, 동료들 간에 경쟁이 결여되어 있으며, 끝으로 일부 학과에서는 외부용역과제(project)를 너무 많이 맡고 있어 기초연구(fundamental research)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충고는 자연대와 공대 뿐 아니라 다른 대학, 다른 학문분야에도 그대로 통할 것이다. 나는 이 가운데, 다른 두 가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뚝 선 봉우리 부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한국의 과학, 기술 더 나아가서는 학문 전반 그리고 경제의 장기 발전에 매우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에 봉우리가 없으면 한국이 중견 국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선두 국가가 되는 힘들다. 단기적으로는 봉우리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봉우리를 모셔올 수도 있겠으나, 과학기술 분야의 세계적 대가가 과연 아시아의 한 구석에 있는 서울대의 초청에 선뜻 응하여 이곳에 계속 머무르며 동료들을 이끌고 연구하기를 원할 가능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여러 가지 강력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최장 1,2개월 정도까지는 초청에 응할지도 모른다. 사실 서울대 경제학부를 비롯한 몇몇 학과가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몇 주가 아니라 몇 달 이상의 장기간 이들을 초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과학 더 나아가 학문의 발전을 이끌 봉

우리 부족 분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봉우리를 우리가 길러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봉우리를 길러내기 위한 방법 중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부터 강조해야 할 것이 교육이다. 봉우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미래 한국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원을 잘 만들어서 미래 학문의 큰 봉우리가 될 학생들을 어릴 때는 물론 석사박사 과정에서도 잘 교육시켜야 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한국에서 대학을 마친 후 대학원을 외국에서 다니게 해서도 세계적인 학자를 키워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한계는 지난 50여년간의 외국 유학의 역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 세계적인 학자를 길러내지 못하면 한국은 학문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봉우리들을 충분히 길러내기 위해 교육은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어떠한 자질들을 일관되게 길러주어야 할까?

첫째는 체력이다. 체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노력에 의해서도 향상될 수 있다. 세계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 교육의 특징은 처음에 '체육', 그리고 '덕육', 그 다음에 '지육' 하는 것이다.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지적 능력이 원활히 축적되고 이는 곧 수월성으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정확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체육을 강조하는 영국에 학문의 봉우리가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닌 듯 싶다. 둘째로 중요한 자질은 창의력이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새롭게 생각하는 능력이다.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에게 '오늘 학교에서 질문을 몇 개나 했느냐?'고 물어보는 반면, 한국인들은 자녀에게 '오늘 선생님의 질문에 몇 개나 대답했느냐?'고 묻는다고 한다. 이것은 큰 차이이다. '내 질문을 교수님이 못 알아들으시면 어쩌나?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다른 학생들이 흉보지 않을까?' 나도 이런 생각들 때문에 대학 다닐 때 질문을 많이 못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엉뚱한 질문은 교수에게도 크게 도움이 된다. 모르면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마침내 알게 되면 학생들에게 대답해 주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물론이려니와 교수들도 배우는 게 많이 있다.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중의 하나가 다양성이다. 교수와 학생이 다양해져야 한다. 다양한 구성원 속에서 창의성이 더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총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지역균형선발

제'를 도입했다. 전체 학생의 1/3 정도는 지역 균형선발로 뽑아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골고루 학생들이 들어오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원이 다양해지면 학생이나 교수들이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은 간접 경험을 통해 다른 생각들,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들이 창의적인 생각들로 발전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솟아나오는 많은 창의적인 생각들이 대학을 지식의 전달 기관으로부터 지식의 창출기관으로 탈바꿈 시킬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학문의 봉우리가 많이 생기기라고 믿는다.

이런 자질을 갖추어 준 뒤에는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다양한 종류와 차원의 지식이 있으나, 그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누가 물어보면 나는 주저 없이 '국어'라고 대답한다. 국어는 목수의 연장과도 같은 것이다. 국어를 잘해야 생각을 잘할 수 있고, 생각들이 모여서 사고가 되고, 사고가 모여서 사상이 되고, 사상이 모여서 문화가 된다. 이 때 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읽기, 말하기, 쓰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훈련을 해야 한다.

좋은 교육 달성을 위한 이상의 조건들은 학문에 봉우리를 키워내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나온 생각이다. 초, 중,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하여 세계적인 봉우리를 키울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학문의 봉우리를 키워내기 위해, 편법이나 있지도 않은 지름길을 찾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확실한 제안이다.

하나 더 강조하려는 것이 기초강화이다. 지금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고도 너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 대학들에서는 1970년대에 이미 대학에서 배운 구체적인 지식은 졸업후 3-4년이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대학 개혁에 들어갔다. 그 개혁의 아이디어는 간단한 것이었다. 대학에서 응용적인 것을 좁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것들을 넓게 가르치자는 것이었다. 좁게 응용적으로 가르쳐놓은 것들은 금세 낡은 것이 될 수 있지만 대학에서 기초적인 것들을 넓게 가르쳐두면 세상이 변해도 거기에 대처할 능력이 생긴다고 본 것이다. 미국이 1990년대에 역사상 가장 큰 호황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1970년대의 교육 개혁에 있었다는 연구 결과들은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그것은 학문의 봉우리를 키우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류근관 교수

교육은 미래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교육제도와 중고교 및 대학 신입생 선발방식의 변천을 보면 많은 교육정책이 붓물처럼 쏟아져 나왔고 입시제도 또한 거의 매년 변했다. 주요 변화로는 대부분 지역에서의 중고교 입시제도 폐지, 대학 본고사 폐지, 학력고사의 수능능력 시험으로의 변화, 수능능력 시험 성적의 등급제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사교육시장의 과열화 방지, 교육을 통한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현상 극복” 등의 정책목표가 있었다. 예컨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한 교육부 장관이 등장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초·중·고교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교사의 연령 구성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실험결과, 실험대상의 “획기적” 학력저하 말고는 별로 뚜렷한 것이 없다. 그동안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실험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아왔다. 현재 우리 사회는 스포츠 엘리트 이외의 다른 어떤 엘리트도 부정하는 하향 평준화, 비생산적인 고시 열풍, 천대받는 과학자와 엔지니어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교육은 백년대계다. 우리의 교육정책을 이대로 끌고 나갔다가는 우리의 앞날이 우려된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인재양성과 연구개발이 중요하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대학과 엘리트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육에 있어 기회의 평등화는 중요하지만 결과마저 평등화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육이 평등화를 지향하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세계 200여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최근 우리의 이웃이자 경쟁상대인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일본의 변화를 보면, 우리 교육계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알 수 있다. 이들 나라 모두 엘리트 학교의 건설, 세계적인 대학의 유치, 세계적인 학자 및 연구설비의 유치에 정부가 나서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정책 및 교육현실이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하다. 교육의 폐해는 즉각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반면, 새로운 교

육정책의 장밋빛 청사진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전달되어 소비자인 국민을 현혹시키기 때문이다. 최근 실증적 근거가 확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교 평준화/비평준화”의 논쟁이 끝났다고 할 정도로 평준화의 성과에 대해 자신만만한 교육부 관료들의 주장을 보라. 금년도 입시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하는 수능능력 시험 성적의 등급제는 또한 그 정체가 무엇인가. “보다 많은 정보보다는 보다 적은 정보가 학생 선발에 유리하다고 믿는 것인가, 수험생에게 공평한 처사라고 믿는 것인가.” 문제는 정작 교육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는 말기 암처럼 손을 쓰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영국의 대학을 보라. 세계의 대학을 주름잡던 곳이 영국인데 이제 영국에 세계적인 대학이 몇이나 있는지 과연 최고 20위, 10위권에 하나라도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옥스브릿지는 이미 옛말이 되었다. 교육기관은 기업과 다르다. 기업과 달리 쉽게 망하지 않는다. 이는 교육서비스로 수입을 얻는 필자 같은 사람 및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교육관료들에게는 다행이겠으나 국가적으로는 재앙이다. 폐지되어야 할 교육정책/교육현실이 손쉽게 정리되지 못한다. 부작용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더 이상의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각계각층의 주목을 받게 된다. 잘못된 교육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경제가 짊어지게 된다. 그 피해로부터 회복하여 재기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한 그때그때의 시의 적절한 경고, 예컨대 대학 신입생의 학력저하, 조기 유학 및 사교육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 교육현실에 대한 소비자 및 공급자 모두의 불만을 우리 교육당국은 오랜 기간 무시해오고 있다.

지난 1997년의 경제/외환위기 이후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포함한 우리 젊은 층의 선택을 살펴보면, 갖은 자격증 준비현상 심화, 취업 시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으로의 쏠림 현상 강화, 의대/약대/수의대/한의대/교대/법대처럼 이른바 직업이 보장되는 전공으로의 집중현상 강화 등의 현상이 목격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도 놀란다고 했던가? 지난 1997년 경제/외환위기의 충격을 너무 어린 시절에 겪어서 그런지 지금의 젊은 층은 “안전”과 “보장”을 직업선택의 최우선 기준으로 선정한 듯하다.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모험정신이 줄고 활력이 없어지고 있다. 정작 지난 1997년 경제/외환위기의 보다 큰 피해는 눈에 보이는 소득의 감소보다 눈에 안 보이는 실험정신의 결여/무사안일의 만연에 있다. 젊은 층의 이러한 태도와 우리의 교육현실이 맞물려 갈 때 우리산업계가 과연 10년, 20년 후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누리던 인재의 풀을 향유할 수 있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다. 과거 우리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은 산업화 및 고도성장의 초석이 되었다. 우리의 중화학 공업, 자동차 공업, 전자산업, IT업계의 성공신화 뒤에는 이들 업계를 이끈 엘리트들이 있었다. 다수가 모여 합작으로 전자제품을 단순/조립하던 시기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평범한 다수의 민주주의적 다수결에 의해 부가가치가 생산되지도 않는다. 우리 사회가 엘리트를 키울 이유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수한 중고교 졸업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그나마 이공계에 진학한 학생마저도 자격증과 고시에 쏠리면서 자연대학과 공과대학이 황폐화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수석입학생이 공대와 자연대에서 주로 나오던 지난 60-80년대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미국은 우수한 미국 학생이 이공계에 가지 않더라도 중국, 인도, 동유럽 등 세계 각지로부터 젊은 과학 엘리트들이 그 공백을 메운다. 우리는 미국과 여건이 다르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교육과 입시에서 경쟁은 사라지지 않는다. 경쟁은 심화되었고,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교육을 통한 세대간 지위 및 부의 대물림 현상이 약해졌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교육부의 착각 속에 경쟁을 없애겠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부와 지위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그럴듯한 구호 아래 교육정책을 이리저리 바꾸다 보니 정작 경쟁도 없애지 못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비뚤어진, 잘못된 경쟁만을 시켜왔다.

교육의 장에서 게임의 규칙이 엉망이 되어 버렸다. 엄청난 사교육비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엘리트가 과거의 엘리트보다 창의력, 논리력, 문장력 그 어느 것 하나 개선되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수학실력과 작문실력은 20,30년 전만도 못하다는 게 서울대 교수들의 중론이다. 인생에서 논술과 면접이 중요한 줄 누가 모르나. 다만 교육부는 이 중요한 항목의 집행에 있어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논술과외를 통해 쓰는 천편일률적인 “모범답안”을 쓰는 수험생, 면접하다 말고 면접 교수 앞에서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하며 몇 분씩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수험생 등 교육부는 한국적 진풍경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다른 부분에서처럼 교육에 있어서도 경쟁의 존재를 인정하고 바람직한 경쟁을 제한하는 교육정책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입시에 대한 교육부의 간섭은 필요한 최소한의 선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국내의 교육 소비자가 질 높은 교육을 즐길 수 있게 하자. 나아가 교육의 공급자인 국내의 교육기관과 외국의 교육기관이 서로 경쟁하게 하자. 셋째, 고등학교 입시의 부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명문고를 부활시키고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이들 명문고에 외국어고 과학고 등의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다. 엘리트의 육성을 일부 분야로 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외국어고 및 과학고 졸업생이 반드시 해당분야로만 진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저소득층의 자녀가 이런 일체의 변화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즉 저소득층의 자녀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하자. 사실상 현재 공교육이 무너진 상황에서 강남의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을 압도하는 것을 보면 이전의 명문고는 저소득 우수인력에 대한 공적 지원의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다섯째, 교육의 소비자인 학부모, 기업, 사회각계의 저명인사, 해외의 한국인 우수인력 등으로 이루어진 가칭 “국가의 장래를 위한 교육정책 심의위원회”를 두어 교육부의 제반 정책을 감독/심의하게 하자. 그간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면 더 이상 교육부의 아이디어에만 우리 교육



을 볼모로 잡힐 수는 없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을 겪고 투자자의 직접적인 간섭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간 우리 교육을 뒤흔든 우리 교육부에 대해서도 소비자인 학부모와 사회가 좀더 간섭하고 생산자인 학교 및 교직원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엘리트 교육을 강화하자. 이때 부모의 소득 및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엘리트 교육의 기회만큼은 공평하게 부여하자. 다만 기회를 넘어 실제로 모든 학생을 엘리트로 교육시키겠다고 비현실적인 주장과 구호는 남발하지 말자. 대다수 학생을 그만그만하게 만드는 평등화 교육을 지양하자.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은 추구해야 하지만 결과마저도 평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획일적인 평등화 정책이 도리어 사후적 불평등을 강화할 수

도 있다는 영국의 경제학자 로이(Roy)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연구와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사교육비 감축 및 입시과열 방지를 목표로 내걸고 추진된 본고사 폐지, 쉬운 문제 출제 경향, 내신 강화 등이 과연 사교육비를 감축하고 입시과열을 해소했다는 실증적인 근거가 있는가? 또 교육을 통한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로 채택된 교육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다고 하는 실증적 근거가 있는가. 구호보다는 논리와 증거에 입각하여 백년대계의 자세로 교육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고 인류 보편성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 후손이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대접받고 살게 된다.



임희택 변호사

일 본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일본은 성공하고 조선은 몰락하여 식민지 시대를 겪게 되는 역사의 시발점에 일본 메이지 유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150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을 만들어준 사건이어서 우리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일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서적들 중 일본 메이지 유신의 역사를 제대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아마 메이지 유신의 전체모습을 보려면 꽤 많은 서적을 짜집기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메이지 유신에 대해 별 관심이 없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19세기부터 시작한 조선의 몰락의 원인이 무엇이었으며, 일본의 성공원인은 어디에서 기인하였는지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 기업자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로 기업의 CEO를 상대로 한 법률 전략적인 자문업무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일도 많은 부분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일과 다르지 않기에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는 식견이 없으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CEO나 그에게 법률자문을 하는 변호사는 역사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역사의 교훈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조직을 되돌아보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회사의 CEO나 변호사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의 많은 분야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히 적용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저 역시 변호사로서 자신의 업무를 보다 충실하게 하려다 보니 역사공부에 좀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주역인 사쓰마번의 중심지인 규슈 남단의 가고시마 지역과 조슈번의 중심지인 혼슈 서남단의 하기 지역을 여행한 바 있습니다. 이 두 지역에 대한 역사기행을 통해서 얻은 인상 중 가장 으뜸은 양 지역 모두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조선의 도자기술을 도입하거나 조선의 도공들을 납치하여 도자기 산업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물적 기반을 갖추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고시마 지역의 도자기 산업은 전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납치되어 일본으로 건너간 남원 지역의 도공들에 의해 시작되고 만개되었는데, 사쓰마번은 그 도자기 무역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그렇게 축적된 부가 메이지 유신의 물적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 메이지 유신에 대한 자료를 읽어보기 전에는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근대 사상을 충분히 습득하였고 그러한 사상적 기반 하에서 혁명을 하였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라는 사람들은 봉건 왕조의 지배 이념에 폭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근대 사상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적 기반의 토대는 조선보다 탄탄했으나 지적 기반의 토대는 조선보다 나았다고 하기 어려운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것을 보면, 한 나라의 성공 여부도 운에 좌우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고시마나 하기 지역의 유적지들 중 유신 주역들이 교육을 받은 장소를 방문해 보면 우리 시골 서당 수준을 조금 벗어난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퇴계사원이나 병산사원 등과 비교하면 그 학문적 깊이나 교육적 환경 등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낙후된 지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근대에 성공하여 아시아를 호령하는 위세를 떨치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유적지를 방문해 보거나, 일본의 근대사를 공부해 볼수록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물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일본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낮은 물적, 지적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도약의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쉽게 결론지을 수 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논의해서 찾아내야 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역사의식이 없이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소의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경제학을 계속 전공하거나, 고시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 기업체에 취직할 예정이라 하여도 틈틈이 역사공부를 할 것을 권합니다. 역사를 이해하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어느 분야에서건 뒤처지기 쉽습니다.

경력 및 주요논문

경 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조세법 전공) (1989)
- 제2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80)
-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2)
- 사법연수원 제4기 수료 (1984)
- 해군 법무관 (1985~1987)
- 신 & 김 법률사무소 (1988)
- 김 & 장 법률사무소 (1989~1991)
- 법무법인 케이씨엘 창립 파트너 (1991. 6. ~)
- 서울은행 부실기업 판정위원 (1998)
-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1998~현재)
- 산업자원부 고문변호사 (1999~현재)
-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평의원 (2004~2006)
- (주)농심홀딩스, (주)한진해운 사외이사 (현재)
- (주)KCC, (주)태평양,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고문변호사 (현재)

주요논문

- 재화와 용역의 무상공급과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규정에 관한 해석기준
- 부가가치세법상 하자 있는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 조세소송의 문제점과 그 대책
-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와 기부금의 의의
- 조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례분석 외 다수

알 립 니 다

경제학부 소식지에 전하실 내용이 있으신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자에게 전해주시면 다음번 소식지에 실도록하겠습니다.

책 속의 경제학, 경험 속의 경제학



석사과정 이연준

~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가는 길도 아니고, 배움을 뽐내려고 계속 이 길을 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지금 내가 배우는 것들이 조금이나마 나중에 그 무엇인가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믿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 종락 -

지식이 많은 사람이 꼭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듯이, 또한 책에 의한 지식뿐 아니라 경험에 의한 지식에도 목이 마르다. 어떤 것을 이해하는 데에 꼭 책의 지식만이 소스인 것은 결코 아니니까, 내가 얻은 지식에 갇혀 있지 않은 융통성, 그리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면 아주 한참 남았다는 생각. 그나마 다행인 것은... 더 많은 기회들이 보이고, '책을 통한 배움'이 가치 있는 것임을 알려주는 시그널들을 더 많이 접한다는 사실이다.

학부생 때 같이 유학 준비를 하던 한 후배의 미니홈피에서 얼마 전 읽은 글을 종락 및 편집한 내용입니다. 미국 서부의 명문대에서 현재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후배가 현재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너무나 공감할 수 있었던 글이었습니다. 제가 요즈음 느끼던 생각들과 너무나 흡사했기에, 저는 고 때 토드 부크홀츠의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을 읽고 경제학자를 꿈꾸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입학한 후 병역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경제학 유학 준비를 하였습니다. 학점을 잘 받기 위해 늦게까지 사회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어려운 수학 과목들을 자연대생들과 함께 듣고, GRE 시험을 보기 위하여 일본을 오가고, Teaching Assistant와 Research Assistant를 하며 경제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몇 년이 지나자 저에게도 경제학 박사과정이라는 유학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을 들어서려던 저는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되어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전혀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2007년 초 갑작스럽게 진로를 바꾼 저는 현재 홍콩의 한 투자은행에서 신용파생상품 관련 일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홍콩, 싱가포르, 뭌바이, 런던, 뉴욕 등 세계 각국의 금융 허브에서 활동하는 여러 금융 전문가들과 이메일, 전화를 하며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배우던 중 유학의 길을 꾸준히 걷고 있는 후배의 글을 보게 되었고 비슷한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학부생 후배 분들에게 저의 조그만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글을 씁니다.

'저도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싶은데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며 제게 묻는 후배들을 볼 때마다 '사실 난 잘 모르고 경제학 유학 준비하는 거라면 내가

무슨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GRE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는 데 라는 생각이 아직도 드는 저는 짧게나마 책 속의 경제학과 경험 속의 경제학을 조금씩 체험한 경우입니다. 경제대학원에 진학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경제학에 대해 공부하며 재미를 느끼고, 교수님의 지도 하에 게임 이론 분야의 논문을 작성하면서 창조적 작업을 한다는 생각에 매료되던 저였지만 가끔씩 궁금했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경제학이 현실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현실 경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경제학에 필요한 수학 과목을 더 들어도 현재 콜금리가 어느 수준인지는 여전히 모르던 저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작스럽게 취직을 하여 금융 업무를 다루면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 속의 경제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책 속의 경제학은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었지만 경험 속의 경제학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출처의 수많은 정보가 블룸버그, 로이터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에서 저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이해하고 최종 목적에 맞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복잡한 미분적분 계산 능력보다 쿠팡 지급을 위한 날짜 계산이 제 업무에 있어서 더욱 필요한 능력임을 알게 되면서 책 속의 경제학은 은행에서 제가 하는 일과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하는 위험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의 한 투자은행에서 3년 간 일을 하다가 홍콩에 온 한 헤지펀드 매니저와 오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친구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무척이나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제가 글을 인용한 후배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이 친구가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에 관한 온갖 뉴스를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보스와 투자 기회에 대해 논하는 등 경험 속의 경제학에 파묻혀 지내는 이 친구는 책 속의 경제학에 대해 궁금해 하고 배우고 싶어했습니다. 경제학 논문을 쓰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연구해서 써야 되냐는 물음에서 시작해 학문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졌고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론적으로 경제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는 경제학부 후배, 홍콩에서 아시아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 친구, 그리고 그 둘의 세계를 조금씩 엿본 저.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의 결론은 진부하지만 책 속의 경제학과 경험 속의 경제학이 상호보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의 경우 신용파생상품 관련 일을 하면서 금융계에서 널리 쓰이는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pricing 방법 중 하나가 한 학자의 논문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책 속의 경제학이 경험 속의 경제학에게 새로운 시야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또 한편으로 저는 Private Equity 펀드 일을 하게 되면서 '학부로 다시 돌아간다면 회계 및 기업 재무에 대해 열심히 공부할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실 경험을 통해서 책 속의 경제학에 담긴 유용성을 깨닫고 뒤늦은 motivation을 가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후배 분들이 졸업 후에 학자의 길을 걸어 경제학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취직을 하여 현실 경제에 참여할 것인가, 혹은 두 가지 길이 적절히 혼합된 길을 택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제 이야기가 하나의 조언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fession of an EconoMiss



학부4학년 이주원

해마다 한 해 말이 다가오면 상념에 잠기게 된다. 대학에 입학한 뒤 찾아온 모든 12월에는 특히 그러했다. 1학년 겨울은 곧 신입생 시절이 끝나고 전공진입생이 되기에, 2학년 겨울은 이제 소위 “고학번”이 되기에, 3학년 겨울은 대학생활의 마지막 해가 곧 찾아오기에, 그리고 지금은 곧 졸업할 하게 되어 생각이 많다. 시간은 연속적이고 사람이 그것을 임의로 구분해 놓았을 뿐인데, 한 마디가 끝날 때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상념에 잠기는 것이 신기하다.

지난 4년간 대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다. 공연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방학 내내 합주 연습을 하기도 했고 경제학부 내 학술 동아리 SFERS에서 활동하면서 대회 및 세미나를 준비하기도 했다. 후회가 없는 대학생활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쉬운 점이 조금 남는다. 마지막 학기이다 보니, 요즘 듣는 수업에 나보다 어린 학생들을 매우 많이 본다. 신입생들이나 막 경제학을 배우기 시작하는 전공진입생들에게 전공과목을 조금만 들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물론 경제학부 전공과목 중에는 추천하고 싶은 과목이 매우 많다. 나는 대학 첫 학기에 김대일 교수님의 경제학원론1을 듣고 그 때 접한 경제학적 사고방식에 매료되어 경제학을 전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동안 나의 사고를 보다 논리적으로 다듬고 확장하는데에는 경제학부 전공 과목 만한 수업이 없었다. 경제학부 수업 중에는 아무리 그 전날 숙제를 하느라 무리를 했더라도 절대 줄 수 없는 강의들이 많다. 그러한 강의들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고 보람을 느꼈다. 경제학 공부의 기본적인 도구, 수학의 첫 걸음인 미적분학을 수강하고 계량경제학 수강에 도움이 된다는 선배들의 추천에 선형대수학 역시 수강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학부 전공과목 혹은 관련 수학 과목들에 관한 문의들이 경제학부 익명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내 자신이 너무 경제학에 함몰되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들어서이다.

나는 경제학 외 다른 분야의 과목을 들으면서 영감을 얻고 내가 공부하는 경제학과 의미의 연관성을 생각해보는데 인색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핀 제조업의 예를 들며 분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가 극찬한 작업장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공정을 도맡아 하지 않고 “한 사람은 철사를 펴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똑바르게 하고, 세 번째 사람은 그것을 자르고, 네 번째 사람은 그것을 뾰족하게 하고, 다섯 번째 사람은 그것에 머리를 붙이기 위하여 그 끝을 간다.” 그런데 좋은 편을 만들려면 각 공정을 맡은 사람이 다음 공정에 대해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 공부할 때에도 분업과 협업의 이점을 살리려면 한 학문과 다른 분야와의 관계를 잘 알고 다른 분야로부터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사회심리학을 수강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지만 결국 실행하지 못했다. 가을 학기에 개설되는 최신 철 교수님의 사회심리학 수업에서 나는 최근 학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 을 가정하는 행동경제학에 대해 배웠다. David Kahneman은 고 Amos Tversky와 함께 연구한 Prospect Theory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다. 경제학부 어느 과목에서도 배우지 못한 내용이다. 우연히 호기심에 수강했던 심리학과 과목에서 경제학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을 듣게 되어 무척 흥분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드물게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회학에 관심이 많던 한 선배는 네트워크 이론을 경제

학에 접목한 경제사회학을 수강했다고 한다. 어떤 선배는 화학이 좋아서 그 과목을 듣다가 화학 반응속도식과 경제성장론에서 동일한 수식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나는 고학년이 되어 진로를 준비하기 전에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해보기를 권하고 싶다. 취직, 고시, 유학 등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그럴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회에 나가면 대학생처럼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경제학은 사람들이 선택에 수반되는 비용과 수익을 분석하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 경제학과 연관을 짓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관심이 있는 분야와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공부 자체가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 경제학부생들은 특히 대부분 진로 준비와 전공 공부의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추천하고 싶다.

또한 경제학 과목은 체계적이고 다루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 학기에 조금씩 찬찬히 음미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추석 때 교수님들께서 약속이라도 하신 듯 숙제 종합 선물세트를 선사하시더라도 여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경제학을 배운 모든 학생들은 각자 최적화를 잘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학문을 분야별로 나누는 것은 시간을 월별로 쪼개는 것보다는 덜 임의적이겠지만 거기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 역시 달력이 넘어가고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그 동안 대학에서 느끼고 배운 것을 잘 간직하고 싶다.



학생수상

2007학년도 사회대 대학원
우수논문상수여



사회과학대학은 2007년도 사회과학대학의 대학원생 가운데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우수 논문상을 시상하였다. 경제학부에서는 김산(석사), 권정현(석사) 학생의 논문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2007학년도 김태성 기념 논문상

경제학부에서는 故 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학부 재학생들이 경제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 김태성기념논문상을 2003년 제정하여 현상공모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학부 4학년 김유진 학생의 “신호이론을 이용한 기업의 비경제적 행위의 경제학적 유인분석”이라는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2007학년도 김태성 논문장학금

경제학부에서는 故 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우수한 학위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김태성논문장학금을 1998년 제정하여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박사과정 나원준, 조영준, 석사과정 문종민, 이정환, 학사과정 이정현, 이혜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박사과정 나원준 학생은 “Essays on Credit, Liquidity and the Great Depression”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조영준 학생은 “朝鮮後期 王室財政 研究 - 宮房財政의 運營原理와 構造變動”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

기타소식

경제학부 점퍼제작

학부점퍼를 제작하여 경제학부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일치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사회대 1학년 대상 경제학부 설명회 실시

사회대 주관으로 2008년도 전공진입할 예정인 1학년들을 대상으로 이근 부학부장이 경제학부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교무 및 학생활동

2006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06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2007년 8월 30일 문화관 중강당에서 있었다. 경제학부는 학사 김주훈 외 53명, 석사 심서연 외 8명, 박사 홍성민 1인에게 학위를 수여하였다.

2008학년도 대학원 전기모집

2008년도 3월에 입학하는 전기대학원 모집에서 석사 49명, 박사 11명을 모집하였다. 이번 입시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석사과정은 필기와 구술고사, 박사과정은 서류와 구술고사를 통해서 선발하였다.

2007학년도 대학원 2학기 체육대회

대학원생들을 주축으로 본교 관악사 운동장에서 대학원 2학기 체육대회가 열렸다. 50여명의 대학원생과 경제학부 교수가 함께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구성원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원 석사/박사 정원 조정 신청

우리학부는 매년 증가하는 박사과정 지원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대학본부에 석사정원을 68명에서 63명으로, 박사정원을 14명에서 19명으로 정원조정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학부졸업논문 표절 방지 감독 강화

졸업논문에 대한 표절의혹을 방지하고 학업운리를 강화하기 위해 졸업논문에 대한 표절 방지 감독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동계 계절학기 실시

2007년도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동계부터 동계계절학기가 실시되었다. 경제학부는 경제학개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원론, 정치경제학입문 등의 강좌를 개설하였다.

조교퇴직 및 신규임용

경제학부 조교로 근무한 김동구, 서아람 조교가 유학 및 개인사정으로 퇴임(2007년 8월 31일)하고 후임으로 김태욱, 한다면 조교가 임용(2007년 9월 1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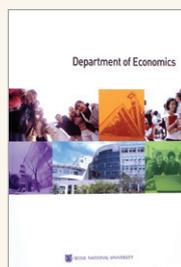
국제화 추진 현황

경제학부 홈페이지 개선



외국인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문 홈페이지(<http://econ.snu.ac.kr/eng>)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매학기 개설되는 영어진행강의를 위해서 기존 강의게시판에 강의 진행언어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영어진행강의에 대한 영문강의게시판등을 신설하여 외국인들의 홈페이지 접근성을 높였다.

학부 홍보책자 발행



경제학부 영문홍보책자를 새로 발행했다. 본교 경제학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우리 경제학부를 알리기 위한 학부소개와 함께 입학 및 장학 등에 대한 안내를 정리하였다.

외국인 학생 오리엔테이션

경제학부는 외국인 학생들의 본교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9월 13일에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장을 비롯한 여러 교수들의 참석 하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 학생들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며 외국인 학생들 상호간에도 서로를 알 수 있었다.

2007학년도 외국인 특별전형

2007학년도 경제학부 외국인 특별전형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지원하여, 지원자 가운데 학부 4명, 대학원 3명을 선발하였다.

해외우수대학원생 지원프로그램 선발

경제학부는 GSFS 학생으로 베트남 출신 석사과정 지원자 1명을 선발하였다. GSFS에 선발된 학생은 학교로부터 장학금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학부에서는 매달 6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가슴으로 생각하라

지나온 삶을 이야기 하고, 교육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담은 저서, 「가슴으로 생각하라」를 2007년 9월 출간하였다. 조화로운 삶과 원칙에 충실한 삶을 강조하고 날카로운 지성은 따뜻한 감성이 감싸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정운찬, 따뜻한 손, 280면>



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

1997년과 1999년에 각각 나온 평론집에 이은 정운찬 교수의 평론집『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는 1999년 이후 칼럼과 올해 초 미국 LA에서 한 강연록을 한 권으로 묶은 책이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까지 다루고 있다. <정운찬, 나무와 숲,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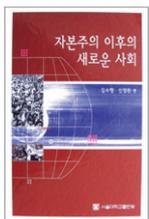
대한민국 이야기

해방전후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독자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이야기」를 2007년 출간하였다. 이영훈 교수는 이 책으로 봉래출판문화재단으로부터 봉래상을 수상하였다. <이영훈, 기파랑,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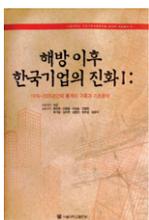
대한민국 역사의 기로에 서다

안병직 명예교수와 이영훈 경제학부 교수의 대답을 책으로 엮은 것으로, 역사에 대한 묵직한 성찰과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날카로운 진단과 함께,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안병직, 이영훈, 기파랑, 2007>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는 김수행 교수가 정년퇴임을 맞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책이다. 김수행 교수를 포함하여 신정완 교수, 정성진 교수 등 총 16명의 글들을 모았다. <김수행·신정완 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해방 이후 한국기업의 진화 1 : 1976~2005년간의 통계의 구축과 기초분석

한국기업의 장기적 자료를 구축을 위해 한국에 증권시장이 개설된 1956년부터 50년이 되는 해인 2005년까지, 우선은 전산화된 형태로 자료가 많이 존재하는 1976년 이후에 대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이근 외 9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한국의 신용평가제도

신용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용평가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를 심층적인 모형을 통해 설명하였다. 수리모형을 통해 신용평가기관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신용평가시장의 과제와 진로를 모색한다. <이인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양동휴의 경제사 산책

이 책은 2006년 2월부터 9월까지 <한국경제신문>의 '경제교실'에 '양동휴 교수의 경제사 산책'이란 제목으로 연재한 원고를 모은 것으로, 서양경제사를 수록하고 있다. 교양 수준의 경제사적 지식을 얻는데 큰 도움을 준다. <양동휴, 일조각, 2007>



거시경제론 연습문제해설집 8판

이번 개정판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연습문제의 풀이를 본 교재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독자들이 교재에서 배운 개념과 이론 또는 모형에 기초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김영식, 율곡출판사, 2007>



계산재무론

실천적 접근법을 통해서 금융파생상품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계산재무론 교재. 이 책은 계산재무론의 필요성을 시작으로 금융파생상품의 가치평가, 계산재무기법들, 나무모형을 사용한 가치평가, 편미분방정식을 사용한 가치평가, 몬테카를로법을 사용한 가치평가 등을 차례대로 설명한다. <최병선, 세경사, 2007>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 비공식 부문의 대두와 계층구조의 변화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사회경제체제 변화와 계층구조 재편성 등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사회주의체제 고수와 개방적 시장주의적 가치관의 유입 간의 충돌로 북한사회에 극심한 내부 모순이 확산되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승훈, 홍두승,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세계경제 최고전략과정 입학안내

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학부와 더불어 세계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 : ASP)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경제연구소 ASP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① 모집인원 : 매기 약 40 명
- ② 문 의 처 : 서울시 관악로599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전 화 : (02)880-5432 / 팩스 : (02)875-9867 / e-mail : asp@snu.ac.kr / 홈페이지 : http://econ.snu.ac.kr/~ecores

ASP 제14기 명단

강원삼 동양종합금융증권 상무	김종빈 우리선물 이사	서근우 하나은행 부행장	임헌목 한국전력공사 부처장
강지현 중소기업은행 부장	김철수 NH투자증권 전무	손경식 경기도청 지역경제과장	장봉진 대한동운(주) 서울택배지사장
권행민 KT 재무실장	김형욱 KTF 상무	손병재 SK건설 상무	전광환 (주)네패스이엔씨 사장
김덕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나종영 한국산업은행 부장	심 실 (주)동의건축디자인 회장	조한목 KB국민은행 본부장
김상길 (주)모코코 회장	남정현 (주)에이케이파트너스 대표	오형섭 대검찰청 국장	최성규 영광정공(주) 대표이사
김순덕 KB국민은행 지점장	박노범 대명회계법인 대표이사	윤진섭 금융감독원 실장	최성식 삼성생명보험 상무
김영삼 한국수력원자력 실장	박도규 SC제일은행 부행장	이사익 한국수출입은행 팀장	최종일 두산중공업 전무
	박상진 딜로이트컨설팅 전무	이선재 동양건설산업 상무	허준영 국가혁신전략연구회 대표
	박창희 육군 수도군단 부군단장	이형중 한국은행 감사실장	홍성필 농협중앙회 상무

발전기금 모금 안내

그동안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경제학부의 발전을 위하여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학부의 전통을 이어 받아 앞으로 위상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제학과 경제학부를 둘러싼 주위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 중심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경제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선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에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학부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동문 여러분의 애정과 정성어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동문께서는 다음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을 하신 뒤 하단의 연락처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 계좌번호 : 079-12-016051 (농협, 서울대지점)
- ▶ 예금주 : 사회대 경제학부

기타 발전기금 관련 문의사항 및 관련내용은 경제학부 사무실의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발전기금 담당자 연락처 전화 : 02-880-6361
E-mail: kang97@snu.ac.kr

“자랑스런 서울대인상”

- 6회 **李賢宰** 명예교수 -



이현재 명예교수

이현재 명예교수께서는 1953년 본교 상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등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1961년 본교 교수로 부임하신 후, 학자와 교육자로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는 한편, 본교 학생처장, 사회과학대학장, 부총장등 보직을 역임하시며 다각적으로 대학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고 1982년 제16대 본교 총장으로 취임해서는 원숙

한 교육행정가로서 대학의 안정과 발전에 막중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탁월한 학술활동을 하시는 한편, 한국경제학의 발전과 시평을 넓히는데 큰 업적을 이루셨고, 또한 대한민국학술원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국내외적으로 우리 학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1986년 혼란기에 득칭되어 국무총리로 재임하시며 국민적 화합을 이끌고 혼란을 극복하면서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사회주의권과의 교류관계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은둔후한 인물, 존경받는 학자, 덕망 높은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다양한 요지를 통해서 토익문화 창달, 한국학진흥 그리고 호암상의 국제적 권위 확립 등에도 지대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제공 : 서울대총동창회



▶ 학력

1953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1969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주요경력

1961~1988 서울대학교 교수 (현 명예교수)
1971~1972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객원교수
1983~1985 제16대 서울대학교 총장
1986~1988 제20대 국무총리
1995~1996 도산서원 원장
1996~2000 제26, 27대 대한민국학술원 회장(현 회원)
1996~2007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1997~현재 재단법인 호암재단 이사장

인적사항이 변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자에게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소식을 보내주시면 다음호 소식지 소식란에 게재 하겠습니다.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E-mail : brhams@snu.ac.kr ● 전화 : 02-880-6359, 6398 ● 홈페이지 : http://econ.snu.ac.kr